

‘강철비2: 정상회담’ 대통령 정우성 · 북 위원장 유연석

북 핵잠수함 납치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 위기상황

남·북·미 움직이는 사람들 담아내...29일 개봉

정우성, 광도원, 유연석의 출연과 양우석 감독의 신작으로 화제가 된 ‘강철비2: 정상회담’이 남, 북, 미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29일 개봉하는 ‘강철비2: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영화다.

남, 북, 미 세 정상들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

먼저, ‘대한민국 대통령’ (정우성 분)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기 이전에 딸에게 용돈을 빼앗기다 시피 하는 평범한 아버지, ‘영부인’ (염정아 분)과 술을 나눠 마시며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소탈한 남편의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라는 대사처럼, 분단 당사

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양국의 의견 차이로 충돌하는 북, 미 정상들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평화를 향한 끈은 의지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던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 미 정상과 함께 북 핵잠수함에 갇히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김용림 분)와 ‘안보실장’ (이재용 분), ‘국방부장관’ (안내상 분)은 가장 먼저 대통령의 안위를 챙기며 재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대한민국의 내실을 보여주며 극의 활력을 더할 것이다.

한편 북이 살길은 비핵화와 개방이라고 믿는 북한의 젊은 최고 지도자 ‘북 위원장’을 연기한 유연석은 강경파의 반대에 맞서 사상 최초로 북, 미 평화 협정을 감행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강렬한 눈빛에 담아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영어로 말하기를 망설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얼른 영

어로 말씀하시라요”라고 말하듯, ‘미국 대통령’과 능동하게 영어로 이야기하고 국제 정세를 두루 살피는 모습으로 인간적인 매력까지 뽐내며 의외의 웃음과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반면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개혁, 개방 잘못하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라며, 중국과의 동맹을 이어 나가는 것이 북이 살길이라고 생각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호위총국장’을 연기한 광도원은 북한 강경파의 애국심과 신념을 그만의 묵직한 연기로 설득력 있게 표현해 냈다.

여기에 잠수함 전투의 북한 최고 전략가 백두호의 ‘부함장’ (신정근 분)과 ‘함장’ (류수영 분)의 등장은 북 핵잠수함에 갇힌 남, 북, 미 세 정상과 ‘호위총국장’ 사이에서 이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마지막으로, ‘스무트’ (앵거스 맥페이든)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북핵을 갖고 귀국하는 것이 최우선인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다.

좁디 좁은 함정실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메리칸 퍼스트”라며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함께 자신을 위협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미국 대통령 스무트’의 모습은 긴장감과 코믹함을 오가는 다채로운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아



나. 또한 남, 북, 미 세정상이 납치된 상황에서 신형 강국 중국을 제일 먼저 견제하며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까지 서슴지 않는, 미국 ‘부통령’ (크리스틴 델튼 분)과 ‘미국방장관’ (폴리 프렌치 분)의 모습은 냉전의 섬 한반도의 문제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으로

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지속 중인 분단국가인 남과 북,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위기 상황을 정우성, 광도원, 유연석, 앵거스 맥페이든, 개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네 배우의 공존과 대결을 통해 실감 나게 그려낼 영화로 오는 29일 개봉한다.

뉴스 1

장동윤 · 염혜란 · 진선규 등 ‘태일이’ 목소리 캐스팅

대한민국 노동운동사 상징적 인물 전태일 삶 그린 드라마



배우 장동윤, 염혜란, 진선규 등이 명필름의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감독 홍준표)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담당한다.

명필름은 13일 “장동윤, 염혜란, 진선규, 박철민, 권해효 등 세대별 대세 배우와 연기파 배우들이 애니메이션 ‘태일이’ 목소리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2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태일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자신을 바친 대한민국 노동운동

사의 상징적인 인물 전태일의 삶을 그린 강동 드라마로, 명필름과 전태일 재단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장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다.

지난 2018년 11월 제작발표회 이후 2019년 초까지 카카오킴이가 치와 함께한 제작비 모금은 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참여로 성료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밝고 남을 위하는 따뜻한 청년 태

일의 목소리는 라이징 스타 장동윤 배우가 맡는다.

데뷔 전 편의점 강도를 막아내며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정의롭고 용감한 대학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장동윤은 이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펜앤드 사이즈’ ‘조선로코 - 녹두전’ 등 굵직한 작품들로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왔다.

“세상에 관심이 많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영향력이 조금 더 큰 직업을 갖게 됐으니 언젠가 이 힘을 좋은 데 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과거 그의 인터뷰 속 포부는 착실하고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는 장동윤이 선보일 밝고 건강한 태일이의 모습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 바쳐 일했으며 전태일 사후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뜻을 이어간 태일이의 어머니 역(이소선 여사) 목소리는 명불허전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연기한다.

2000년 연극 ‘최선생’으로 데뷔했고, 2016년 tvN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나문희의 딸 김순영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TV 드라마에 본격 등장한 이후 ‘도개비’, ‘슬기로운 감빵생활’, ‘라이프’, ‘동백꽃 필 무렵’ 등 다양한 작품 속에서 연기과 배우로서 극의 몰입도를 높여왔다.

‘프로듀스2’ · ‘믹스나인’ 출신 퍼포먼스듀오 재로 데뷔

16일 첫번째 싱글 ‘웰컴 투 마이 정글’ 발매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 출신 재찬과 JTBC ‘믹스나인’ 출신 히로가 퍼포먼스 듀오로 돌아온다. 소속사 메이저9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공식 SNS를 통해 재로(XRO)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웰컴 투 마이 정글’ (Welcome To My Jungle) 수록곡인 ‘컬링’ 뮤직비디오 A버전 티저와 본편을 잇따라 공개하며 데뷔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영상 속 재찬과 히로는 3년 전

푹푹한 모습으로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던 모습과는 달리 180도 달라진 비주얼로 돌아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컬링’ 뮤직비디오에서는 저승사자를 연상하게 하는 소품과 의상으로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를 발산, 개성 넘치는 모습으로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질 것을 예고했다.

데뷔 앨범의 포문을 여는 ‘컬링’은 두 멤버의 그동안의 성장과 열정, 앞으로의 당찬 포부를 보여

주는 재료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대표하는 강렬한 힘합의 곡으로, 고정관념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오히려 폭발하고 유머러스함을 가진 독보적인 뮤지션이자 퍼포먼스 듀오의 길을 향해 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완성했다.

소속사 측은 “20대 아티스트의 시선에서 바라본 케이팝(K-Pop)과 한국문화(K-Culture), 한국 스타일(K-Style)을 영상 곳곳에 장소, 문화, 의상, 소품 등으로 녹여내어 전 세계의 리스너들과 한국적이지만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데뷔 앨범에 수록된 3개의 트랙 ‘컬링’, ‘웰컴 투 마이 정글’, ‘찰레레 팔레레’ 모두 퍼포먼스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XRO는 재찬 (JAE CHAN)과 히로 (HIRO)를 더한 재로(JAE*RO)와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빼내도 그 수치가 변하지 않는 수, 아무것도 없는 공백 (ZERO), 그리고 재찬과 히로의 새로운 출발선 XRO(재로)의 뜻을 담은 팀으로 1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웰컴 투 마이 정글’을 발매한다.

제이플래닛엔터, 첫 걸그룹 ‘루나솔라’ 론칭

8월 말 데뷔

소속사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첫 번째 걸그룹이 공개됐다.

제이플래닛 엔터테인먼트는 13일 0시 신인 걸그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오픈하며 팀명 ‘루나솔라’ (LUNARSOLAR)와 로고를 함께 공개, 본격적인 데뷔를 알렸다. 루나솔라는 NHN벅스가 처음으로 제작한 걸그룹이기도 하다.

소속사에 따르면 루나솔라는 ‘달’이라는 뜻을 가진 ‘루나’와 ‘해’라는 뜻을 가진 ‘솔라’의 합

성어로 달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과 초창하고 시크하면서도 몽환적인 매력과 해의 열정과 밝고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달과 해처럼 전혀 다르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자 하는 포부를 담았다.

4명의 멤버로 구성된 루나솔라는 멤버 각각 다양한 비주얼과 보이스를 바탕으로 한 보컬 기반의 퍼포먼스 그룹으로 매 무대마다 자체 제작한 커스텀 핸드마이크를 이용해 공연 같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멤버 모두 보컬과 퍼포먼스가 뛰어난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에 데뷔 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넘치는 파워풀한 모습을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멤버 지안(JIAN)이 데뷔 전 공개한 HYNN(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을 커버한 영상은 300만뷰 이상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다.

팀명과 로고를 공개하며 공식적인 데뷔의 시작을 알린 루나솔라는 멤버별 아이덴티티 포토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뷔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오는 8월 말 데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컴백’ TOO, 새 앨범 ‘러닝 투게더’ 메들리 공개

내일 ‘하나 둘 세고’ 뮤직비디오 풀버전 선공개

13일 TOO(치훈, 동건, 찬, 지수, 민수, 재운, 제이유, 경호, 제림, 웅기)는 공식 SNS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러닝 투게더’ (Running TOOgether)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타이틀곡 ‘하나 둘 세고’ (Count 1, 2)를 비롯해 ‘스텝 바이 스텝’ (Step By Step), ‘베터’ (Better), ‘데일리

이트’ (Taillight), ‘댄싱 인 더 문라이트’ (Dancing In The Moonlight)까지 총 5개 트랙의 음원 하이라이트가 담겨있다.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인 만큼 TOO는 밝고 펑키한 곡부터 디스코, 발라드 등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하이라이트 음원과 함께 청량한 분위기를 담은 앨범 콘셉트 포토와 재킷 이미지 촬영 현장이 그려졌고, TOO의 한층 물오른 비주얼로 한 편의 청춘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한편 TOO는 오는 15일 오후 6시 전 음원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러닝 투게더’를 발매하기 앞서 타이틀곡 ‘하나 둘 세고’ (Count 1, 2) 뮤직비디오 풀버전을 선공개한다.